

칼럼

장기채 주필



천지에 순응한 노년의 지혜

옛 어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단지 낡고 오래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삶의 지혜다. 그래서 노인은 지혜의 상징이라고 한다.

초라한 겉모습을 싫어하기보다 아름다운 지혜를 그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지혜를 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삶의 지혜다. 그래서 노인은 지혜의 상징이라고 한다.

초라한 겉모습을 싫어하기보다 아름다운 지혜를 그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지혜를 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삶의 지혜다. 그래서 노인은 지혜의 상징이라고 한다.

초라한 겉모습을 싫어하기보다 아름다운 지혜를 그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지혜를 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삶의 지혜다. 그래서 노인은 지혜의 상징이라고 한다.

옛 어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단지 낡고 오래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삶의 지혜다. 그래서 노인은 지혜의 상징이라고 한다.

초라한 겉모습을 싫어하기보다 아름다운 지혜를 그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지혜를 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삶의 지혜다. 그래서 노인은 지혜의 상징이라고 한다.

초라한 겉모습을 싫어하기보다 아름다운 지혜를 그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지혜를 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삶의 지혜다. 그래서 노인은 지혜의 상징이라고 한다.

초라한 겉모습을 싫어하기보다 아름다운 지혜를 그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지혜를 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삶의 지혜다. 그래서 노인은 지혜의 상징이라고 한다.

옛 어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단지 낡고 오래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삶의 지혜다. 그래서 노인은 지혜의 상징이라고 한다.

초라한 겉모습을 싫어하기보다 아름다운 지혜를 그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지혜를 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삶의 지혜다. 그래서 노인은 지혜의 상징이라고 한다.

초라한 겉모습을 싫어하기보다 아름다운 지혜를 그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지혜를 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삶의 지혜다. 그래서 노인은 지혜의 상징이라고 한다.

초라한 겉모습을 싫어하기보다 아름다운 지혜를 그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지혜를 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삶의 지혜다. 그래서 노인은 지혜의 상징이라고 한다.

손을 편다. 태어날 때는 세상 모든 것을 움켜잡아 가지고 싶지만 죽을 때는 가진 것을 다 내주어 빈손이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즐기기 전에 배우고 배워야 하는 법을 배우고 배워야 한다.

하지만 이 나라 노인들은 지혜고 버려야 하고를 할 겨를조차도 없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홀로 사는 노인이 더 많다.

이제 큰 지혜는 작은 실천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한 때 세계를 이끌었던 지도자들도 결국 나이가 들어 따라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아주 사소한 일부터 차근차근 정리하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 아름다운 노년기를 맞이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노인은 지혜의 상징이라지만 노년은 원숭이라 하지 않았던가. 어린이와 똑같아지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늙은이가 되면 설치지 말아야 한다. 미운소리, 우는소리, 헐뜯는 소리 그리고 군소리랑 하지도 말고 조심조심 알려줘야 한다. 알고도 모른 척 어수룩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

옛날 노년의 지혜는 천지에 순응했다. 자신을 낮추고 욕심을 버리면서 살아왔다.

社說

노후 기반시설 점검 서둘러야

정부가 민간이 내년부터 4년간 노후 기반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8조원씩 32조원을 투자하고 열수송관, 통신구 등 지하시설물의 긴급보수와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도 추진한다니 기대가 크다.

정부의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등을 반영해 올해부터 열수송관·통신구 등 지하시설물의 긴급보수를 실시하고 주무부처가 이행여부를 직접 점검한다.

노후 도로·철도·저수지 등은 추가 경쟁예산에 반영된 3792억원 등을 활용해 보완한다. 준공 후 20년 이상 된 지하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 시행, 안전등급을 부여해 관리하고,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관로는 성능개선이나 교체 추진한다.

사고 우려가 높은 지하시설물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정기 점검 빈도를 상향하고, 전력·통신구 등 소규모 시설도 시설물 안전법상 관리대상에 포함한다.

이밖에도 안전점검 진단을 부실하게 수행하는 진단업체는 처벌을 강화하고 교량 등 주요시설의 안전정보 공개를 확대해 안전관리 체계의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

노후 기반시설의 안전투자도 확대한다. 정부는 우선 2020년부터 4년간 연평균 8조원(국비 5조원, 공공·민간 3조원), 총 32조원을 노후 기반시설 안전 보강에 투자한다. 이는 종전보다 연간 3조원가량 상당한 액수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도로·철도·항만 등 교통 사회기반시설(SCC)과 사고 발생 시 파급효과가 큰 댐·하천·저수지와 같은 방재 시설의 안전관리 상태를 C등급(보통) 이상으로 지속 투자·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도로의 경우 노후 교량·터널의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사고 다발지역 보행자 통행시설 개선, 노후 도로 포장 개량 등도 병행한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기본이 튼실한 나라를 만드는 밑받침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車 수레 거 車 駕 肥 輕
 駕 명에 가
 肥 살뽕 비
 輕 가벼울 경

▷ 뜻: 수레의 말은 살췌고 몸의 의복(衣服)은 가볍게 차려져 있음.

대표이사·회장 김평호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호남신문	편집국장 강서원
대표전화 (062) 224-5800	본사: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5층) 서울 취재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편집국 (062) 222-5547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팩스 (062) 222-5548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광고국 (062) 222-5544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방어보행과 방어운전 모두의 안전지킴이

차와 사람 모두가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 아래 우리는 제각기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교통사고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죠. 오늘은 이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어보행과 방어운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방어보행을 통한 보행자 안전 의식 고취가 필요합니다. 방어보행자가 보행 시 사전에 도로의 위험요소를 살피며 돌발 상황에 대비하며 보행하는 것을 말한다. 놀라운 것은 보행 중 교통사고가

난 사람의 3분의 2는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느라 주변상황을 인지하지 못해 사고발생 위험이 높았으므로 보행 중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 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방어보행 원칙은 '서다·보다·걸다'입니다. 첫째 서다는 도로 횡단 전 보행자와 운전자가 서로를 살피는 잠깐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둘째 보다는 청색신호에 우회전 차량들의 진행이 있을 수 있으니 접근차량의 지속적 확인이 필요하다 셋째 걸다는 횡단보도에서 급한 마음에 좌우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파란불만 보

고 뛰어가는 경우가 빈번하다 충분히 시야확보 및 안전 확인 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야간 보행 시에는 되도록이면 밝은 계통의 옷을 입고 반사 물건을 소지한다면 더 좋습니다. 이러한 보행자의 주의 의무는 우리 누구에게나 해당되는데요. 상황 대처능력이나 판단력이 떨어지는 노령인구가 많고, 도로 갓길에 인도와 같은 보호시설이 없는 농촌지역 같은 경우 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방어운전에 대해 준수해야 할 것은 첫째 운전 중에는 반드시 운전이 집중한다. 운전 중에 스마트폰 조작 등은 절대하지 않는다. 둘째 급제동상황 등에 대비하여 안전한 공간을 확보한다. 앞차가 급제동할 가능성도 있고 상대방 차가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더라도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여 서로의 안전을 위해 흔쾌히 양보한다. 셋째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지날 때 양보를 전제로 운전하며 미리 예측하고 대응한다. 교차로를 통과할 때는 신호를 무시한 채 갑자기 뛰어드는 사람이나 차량이 있으므로 반드시 좌우 안전 확인해야 한다.

방어보행과 방어운전은 타인뿐만 아니라 운전자 자신을 지키는 행동이라는 것을 모든 운전자들은 기억해야 한다. 교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첫걸음, 양보와 배려심 있는 운전 습관 생활화하여 교통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국종균 / 광주북부소방서 현장지휘담당

확보한다. 앞차가 급제동할 가능성도 있고 상대방 차가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더라도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여 서로의 안전을 위해 흔쾌히 양보한다. 셋째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지날 때 양보를 전제로 운전하며 미리 예측하고 대응한다. 교차로를 통과할 때는 신호를 무시한 채 갑자기 뛰어드는 사람이나 차량이 있으므로 반드시 좌우 안전 확인해야 한다.

방어보행과 방어운전은 타인뿐만 아니라 운전자 자신을 지키는 행동이라는 것을 모든 운전자들은 기억해야 한다. 교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첫걸음, 양보와 배려심 있는 운전 습관 생활화하여 교통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국종균 / 광주북부소방서 현장지휘담당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